광주시, 시민과 함께 '광주다움' 도시공간 조성

광주역 경제기반형 뉴딜사업·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
도심융합특구·녹색건축물 조성·광주형 평생주택 박차

2021년 도시재생 10대 역점시책 제시

광주시가 올해 도시재생 방향을 '시민공감'과 '광주다움'에 두고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조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31일 '명품 디자인도시 아트도시 광주' 구현을 위한 2021년 도시재생 10대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시는 가장 먼저 지난 26일 착공한 어울림팩토리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으로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및 혁신지구 조성을 본격화한다. KTX 운행 중단으로 도심기능 쇠퇴가 심각한 광주역 일원에 예비창업자 거점공간인 '스테이션G'와 소상공인 지원시설인 '어울림팩토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기반형 뉴딜사업,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해 창업·혁신기업을 집적화하고 쾌적한 정주여건까지 갖춘 혁신거점 기반을 다지는 게 핵심이다.

시는 또 상무지구 일원에는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광주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고밀도 혁신공간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성장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로운 혁신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는 한편 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미래를 대비하는 스마트 그린환경을 조성해 도전이 일상화되는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게 게 목표다.

시는 이 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과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경관계획도 수립한다.

광주시 도시정책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상향식 도시계획을 수립해 광주만의 품격 있는 녹색도시 공간 창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친환경 시대의 견인을 위해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2045 탄소제로 사회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도 펼친다.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 등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공건축물 17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국토부 건의를 통해 점차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를 통한 광주다운 명품도시건축정책, 아트도시 광주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예술성이 가미된 광주다운 도시경관 창출과 함께 도시 건축물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겠다는 포부다.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주형 평생주택도 건립한다. 1단계 시범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 및 무주택 가구 중 미성년 자녀 가구를 위해 500호를 우선 공급한다. 1인가구, 청년, 고령층 등 주거위기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원주민 보호와 주민 요구,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온라인투표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집중한다. 합동점검 및 특별사업경찰 활동을 더욱 강화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선 절차와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자산 보존과 품격있는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가치를 담은 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사전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도시재생정책 추진으로 우리시가 추구하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가 실현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역 일대가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미국 실리콘밸리,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경제공간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 주도로 오는 2025년까지 민간투자 등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자본을 집중 투입해 '창업=광주에서'라는 창업공식을 만들어 내는 게 목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 수산물 수출 '역대 최고'
2억7000만 달러…5.5% 증가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전남도의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보다 5.5% 증가한 2억7700만 달러를 돌파했다.

전남도는 지난 31일 "전남의 수산물 수출 실적은 최근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수출 주력 품목인 김이 1억67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5.2% 증가하는 등 수출 상승을 견인했다. 이밖에 전복 4200만 달러, 미역 2 200만 달러, 톳 1600만 달러, 넙치 200만 달러 등이다.

수출 국가별로는 일본 1억2100만 달러(43.7%), 미국 7500만 달러(27%), 중국 2100만 달러(7.5%), 캐나다 1200만 달러(4.4%), 대만 900만 달러(3.2%) 등으로 상위 5개국이 전체의 86%를 점유하고 있다.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인 김은 칼로리가 낮지만 영양이 풍부해 비건·웰빙 간식으로 인식되면서 일본·미국을 중심으로 구매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가정용 식품 선호 경향으로 김 수요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김 산업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김 수출 3억 달러 프로젝트'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오는 2024년까지 수출형 김 가공 기술 및 제품 개발, 김 품질 및 위생관리 강화, 수출시장 확대, 연구기반 확충 등 18개 사업에 2276억원을 투입한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 수출제품의 다양화와 경영비 부담 완화, 생산시설 위생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을 통한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로 안정적인 수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핵심은 명품공원 조성"

토론회서 지적…공공성 확보 우선
80평형 적절치 않아 소형평수 조정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아파트가 아닌 공공성이 강조된 명품공원 조성에 집중해야 하며, 80평형대 대형평수의 아파트 건립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사업의 핵심은 공원 조성이라며, 아파트 사업은 보조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주제로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추천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 언론인, 공무원, 사업 시행자 등이 참여해 2시간 넘게 집중토론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이날 "전용 면적 85㎡ 이하(34평)를 없애고 85㎡ 초과(37~80평)로만 1828세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특히 80평형대를 100세대 이상 짓는 것은 수정돼야 하며 85㎡ 이하 소형 평수를 포함해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세대수·비공원 시설(아파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대형 평형에 대한 세대수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 사이에선 광주시 행정의 일관성과 철저한 회계 투명성 등을 전제로 한 사업자 수익성 확보, 그리고 '명품공원' 조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계속된 논쟁으로 사업 좌초 등도 우려된다. 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한 광주시가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사업자도 회계 등 모든 사업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남은 개발 이익금은 (광주시와) 계약한 것처럼 모두 환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일부 업체가 제시한 평당 분양가 1600만원에 대한 사업 가능성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광주시와 사업자인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특수목적법인)는 최근 중앙공원 1지구에 들어설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를 후분양 1900만원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특수목적법인 내 여러 사업자 중 한 업체인 한양에서 평당분양가를 선분양 1600만원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고분양가 논란 등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공원 일몰제에 따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사업 부지의 8.17%에 아파트 2827세대를 짓고, 그 개발수익으로 나머지 공원부지에 대한 보상과 함께 시민을 위한 도심 속 명품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형 일자리' 협업팀 가동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 자동차공장 가동을 앞두고 근무자 불편 해소를 위한 협업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31일 "올해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무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문화경제부시장을 총괄책임으로 일자리경제실장, 인공지능산업국장, 자동차산업과, 주택정책과, 상생일자리재단 설립추진단 등 8개 부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공사,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광주글로벌모터스 등이 참여하는 협업팀을 구성하고 지난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부서별 주요 협업사항으로 ▲광주형일자리 부서·기관별 업무와 예산 공유 ▲업무추진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 신속하게 대처 ▲현안 발생 시 신속 대응 등 수요자 중심의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친환경어업 육성·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남산(産) 친환경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3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 오는 2월 2일 전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친환경어업과 친환경수산물의 정의, 친환경어업 실천계획 수립, 친생산·유통지원, 친환경 어업 소득 보전, 소비 및 수출 촉진, 학교 급식용 식재료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수산물 및 유기어업자재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에 대한 시설 설치자금 지원과 친환경어업 실천으로 인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득 감소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추가모집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과	
인문사회	신학과	○
	한국어교육학과	○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실 용음악학 전공)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1. 2. 22(월) ~ 24(수)
· 전 형 일 : 2021. 2. 25(목) 오전 10시

▶ 입학문의 062)605-1114

원서접수는
추가모집 2021. 2. 22(월) ~ 24(수)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www.kwangshin.ac.kr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